

# 'KBS 전국 노래자랑' 준비 만전

## 임실군, 17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전 국민 가요축제 위해 집중 홍보 나서

임실군이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인 'KBS 전국 노래자랑 임실군편'을 전 국민의 화합의 장이자 가요축제로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군은 26일 진행될 예심을 앞두고 군청과 12개 읍면에서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와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 중인 홍보담당관 부서에서는 전국노래자랑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집중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2개 읍면과 교육지원청과 농협 등 관내 유관기관,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불리는 곳을 비롯하여 3차 단 군부대와 관내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5월 28일~5월 31일까지 임실의 대표관광지인 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서 처음 개최

하는 '임실N장미축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접수 창구에는 노래자랑 참가 문이 이어지며 본 경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참가 신청은 17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홍보담당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임실에 직장을 가진 주민으로,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순수한 경연을 위해 기성 가수의 참여는 제한된다.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심은 26일 오후 1시 임실군민회관에서 진행된다. 예심은 총 2단계 심사로 진행되며, 1차 심사에서는 무반주 가창을 통해 기본적인 노래 실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참가자들은 노래방 반주에 맞춰 2차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15명의 본선 진출자가 선발될 예정이다.

대망의 본선 녹화는 28일 오후 2시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노래경연을 넘어 지역의 대표 관광지에서 군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재능과 이야기를 선보이는 화합과 문화 공유의 장으로 꾸며진다.

특히, MC 남희석의 재치 있는 입담과 함께 미스터트롯? 우승자 안성훈, 미스터트롯? 우승자 양지은을 비롯해 김성환, 황민우, 염유리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현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당일에는 약 3,0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교통 및 주차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 만복사지 일원 경관 개선 탄력

## 남원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모 선정... 20억원 규모 확보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 규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 계획(2026년~2030년)'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는 만복사지 일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지는 남원만복사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은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전액 지원하며, 공사는 오는 5월 착공해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대상 지역에 대한 세부 조사를 거쳐 정

비구역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정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전신주와 배전설비 등에 설치된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의 재정비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전선 및 복잡하게 연결된 저압 인입선 정리 △지저분하게 얽힌 방송·통신 케이블 정비 △무단 방치된 폐선·사선 제거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던 요소를 제거하고 감전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달 말 남원시 홍보전시장에서는 '남원만복사지는 조선시대 김시습의 한문소설 김오신화에 수록된 만복사지포구의 배경지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남원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07주년 오수 3.10만세 기념 행사'가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회 주관으로 지난 10일 임실군 오수면 일대에서盛大하게 열렸다.

# 남원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대(사직))가 11일부터 18일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고,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22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1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김영대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하고, 의회도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독립 위한 최초 학생 만세운동 기려

## 임실군, 제107주년 오수 3.10만세 운동 재현

'제107주년 오수 3.10만세 기념 행사'가 오수를 사랑하는 청년회(회장 정양숙) 주관으로 지난 10일 임실군 오수면 일대에서盛大하게 열렸다.

이번 행사는 1919년 3월 10일 당시 오수 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 운동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식이 되었다.

행사는 박현숙 임실부군수, 장종민 임실군의회의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등을 비롯한 각계 기관 및 사단단체장과 학생, 독립유공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오수 3.1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선언문 낭독과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재현행사, 시가행진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3.10만세 운동의 숭고한 정

신을 기리고, 선조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오수 3.10만세운동은 오수 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주도하였으며, 이광수 선생이 주축이 되어 오수 지역에서 전개된 학생 독립운동이다.

이 만세운동은 이후 남원, 장수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었고, 독립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으로, 당시 어린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기념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청용면 출생인 민족대표 33인 중 한분인 박준승선생을 기리고 3월 15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기미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청용면에서는 3월 13일에 '107주년 청용면 기미 3.1독립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 남원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남원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남원피움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부영1차 아파트(용성로 207) 내 총 25세대를 대상으로 진행, 공급 면적별로는 전용 49㎡(20평형) 15세대와 전용 60㎡(25평형) 10세대로 구성됐으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 1명당 2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

능해 최장 6년까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다.

신청자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입주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남원시청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 한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대표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생활과학고실 운영

순창군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과학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생활과학고실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체험·탐구 중심의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아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학 관련 전공 석사 이상 전문 강사들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다양한 체험형 과학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날 중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별 '생활과학고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농업·농촌·식품 산업 정책심의회 열려

남원시는 지난 10일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해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 예산 총 2,260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농업인 대표, 업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예산 신청(안)에 대해 예산 신청내용의 타당성, 농정방향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했다.

2027년 분야별 예산 신청 규모는 총 101개 사업에 2,260억 원으로, 67개 자율사업 1,395억 원, 34개 공공사업 865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재해위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정비와 미래형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에 따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과 농촌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초공익직불제 등 농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시는 선정된 예산 신청안을 이달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업소 모집

순창군이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규 업소 모집에 나섰다.

군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